

# “강경하고 선명한 정권심판 의지에 유권자 호응”

은우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

창당 38일만에 ‘원내 3당’ 등극  
광주·전남 전국 2배 이상 지지  
“호남권에 지역 균형발전 보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로만 12석을 넘겨 ‘원내 3당’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다. 창당한 지 불과 38일 만에 얻은 성과로,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비례대표 개표 결과 조국혁신당은 24.25%를 얻어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36.67%),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26.69%)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광주에서는 5개 자치구 모두에서 40%대 중후반의 득표율을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연합을 앞질렀다. 지역구 후보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표심의 상당 부분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기호 9번’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지민비조’ 투표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연합이 42%로, 조국혁신당을 2%p 안팎으로 앞섰으나, 22개 시·군 중 절반에 가까운 9개 시·군에선 조국혁신당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시(市) 단위 5개 지역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광주·전남의



조국혁신당 은우근(왼쪽)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 브리핑룸에서 조국 대표와 파란불꽃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있다. **뉴스시**

조국혁신당 득표율만 놓고 보면 전국 평균보다도 2배 가까운 지지세다.

조국혁신당이 일으킨 ‘돌풍’에 대해 은우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은 강경하고 선명한 정권심판 의지와 정세에 민감한 광주·전남 유권자들의 시민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은우근 시당위원장은 “총선 전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가장 먼저 오르기 시작한 곳은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이였다”며 “이는 총선에 있어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전국 어느 곳 보다 정권심판에 대한 열망이 컸던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우리 당이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과 함께 정권심판을 강조하면서 야권 강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물론 국민의 주권, 나라의 자주권마저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역 투쟁의 선봉을 자처한 점 역시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의 돌풍 배경에는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이라는 선명한 양대 목표를 제시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천 문제로 내용을 앓았던 민주당

에 대한 불신이 커짐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공약해 범야권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끌어안아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는 평가다.

이 밖에 조국 대표 개인에 대한 동정론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은 위원장은 “과거 조국 대표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자마자 여권과 검찰에 의해 가족이 (가혹한 수사로) 분해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사태가 검찰 정권 하에서 국민 누구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표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주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더 이상의 퇴행은 두고볼 수 없다는 민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동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내걸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또 열렬한 지지를 보내준 호남권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총선 이튿날인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 대표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알 것”이라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서미화 전종덕 김윤 강선영 인요한 서왕진

## 광주·전남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6명 당선

민주연합 서미화·전종덕·김윤  
국민의미래 강선영·인요한  
조국혁신당 서왕진

운 당선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서미화 당선인은 장애인과 인권 신장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보당 추천 후보로 비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종덕 당선인은 32년 차 노동 전문가이자 민주노동당 최연소 전남도 의원을 지냈다.

연합정치시민회의의 추천을 받은 김윤 당선인은 서울대 의대 교수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5번을 받은 여수 출신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8번에 배치된 순천 출신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다만 이들은 연구만 있을뿐 지역에서 사회 및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 지역 출신 당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비례후보 12번에 배치됐던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도 당선인 명단에 올랐다. 서의장은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3호 인사다. 영광 출신으로 광주 석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기후에너지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총선서 광주 동신고·여고 동문 4명 당선 ‘진기록’

안도걸·조계원·정준호·전진숙  
영등포갑 채현일은 동신중 출신

제22대 총선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18명 가운데 무려 22%에 달하는 4명이 동신고(동신여고 1명 포함) 동문이었다.

동신고 출신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동구·남구울의 안도걸 (13회·1982년 졸업), 여수울의 조계원 (15회), 광주 북구갑의 정준호 (30회) 당선인이다.

광주 북구울의 전진숙 당선인은 동신여

고 16회다. 동신고로 치면 19회(1988년 졸업)와 같은 기수다. 1974년 시작된 고교입시 평준화 이전의 전통 명문고였던 광주일고나 광주고를 제외하면, 특정 고교에서 4명 이상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한 사례는 전무하다.

광주와 전남은 고등학교 수만 212개에 달한다. 동신고와 동신여고는 학교법인 동강학원 소속이다. 동강학원은 고 동강 이장우 박사가 지난 1966년에 설립했다. 동신중과 동신여중, 동신고, 동신여고 등 4개 학교를 두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출신으로, 영등포갑에서 승리한 민주당 채현일(동신중 17회) 당선인까지 포함하면 동강학원 출신 당선인은 5명에 달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동신고 16회), 20대 국회에선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동신여고 29회)이 동신 동문이다.

광주 북구 풍향동에 위치한 동신고는 1967년 3월 개교했다. 졸업생 수는 올해까지 2만3246명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 이낙연 “시민 뜻 겸허히 받들겠다”

출근길 지역민에 낙선 인사

제22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울에 출마했던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11일 광주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낙선인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산월나들목(IC) 일대에서 고별인사를 했다.

이 대표는 ‘광주 시민의 뜻 겸허히 받들겠습니다’라는 말이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시민들을 향해 연신 허리를 숙였다.

이 대표는 이날 낙선인사문을 통해 “광주 시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광주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며 “제 말을 들어주시고, 광주의 미래를 생각할 기회

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선거는 저에게 많은 것을 남겨줬다”고 전했다.

이어 “저를 도우러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온 수백명의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여러분의 선거운동은 순수했고, 아름다웠고, 감동적이었다. 광주 시민께도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상화, 민주세력의 재건,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일을 하겠다”며 “특히 우리 정치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증오와 저주의 선동정치를 어떻게 끝낼지, 국민과 함께 끈기있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앞으로의 정계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은지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산월나들목 주변 교차로에서 낙선 인사를 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제공**

전남일보 구독  
www.jnilbo.com